

전남 폭설 오면 또 당한다

작년처럼 '눈 폭탄'엔 비닐하우스 51%·축사 40% 붕괴

노후공장·주택 안전 통계 없고 비상연락망도 구축 안돼

지난해 이맘때 전남지역이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비롯한 농축산 시설물과 공장 등 건물이 붕괴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사전대비가 소홀, 피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또 폭설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노후 공장이나 주택의 안전상태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최근 전남도가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폭설 재산피해액 4천372억원 가운데 손실

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던 비닐하우스와 축사붕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주 보강 등 준비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비닐하우스 시설물 대장에 등록된 1만1천448 농가에 대해 피해방지용 지주 확보 및 보강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미치지 못한 5천624(49%) 농가만 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시설물 대장에 등록된 6천125 농가의 축사 가운데 피해예방 대비를 마친 곳은 3천696(60%) 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농가의 51%, 축사농가의 40%는 1년 전과 같

은 기상상태가 반복될 경우 시설물 붕괴와 농축산물 손실 등 대규모 연쇄 피해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은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보강하기 위한 지주목과 끈 등 자체 구입 비용과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부담을 느낀 농가들이 외면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도내에는 시설물 관련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축사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어 폭설시 피해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

업체나 공장, 산간 오지 주택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유사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연락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욱이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내년에나 가능하게끔 폭설 등 겨울철 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기업들은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큰 고충을 겪어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전남도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경비마련 등을 이유로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7일 광주·전남 전역에 눈이 내린 가운데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의 한 딸기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 부부가 하우스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후진지역 대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sbu.ac.kr
▶ 상설전화 062-270-1114 ▶ 062-670-5000

세계로 뚫어주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 상설전화 062-353-7000 ▶ 062-360-5000

전남 서해안 최고 5cm 눈 더 온다

휴일 광주·전남에 전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18일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광주지방기상청은 "목포·영광·함평 등 서해안 인근 지역은 18일 오전까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적게는 3cm에서 많은 곳은 5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

상된다"고 17일 예보했다. 광주는 16일 밤 11시12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 17일 새벽 1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오전 11시에 풀렸다. 영광·함평·무안·목포·신안군(후산면 제외) 지역은 17일 새벽 2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17일 오후 5시에 해제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유급보좌관 예산 편법처리 강행...반대의원에 주목 광주시의원 자질 있나

출범 6개월이 채 못된 광주시의회

의 추태가 점입가경이다.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의원 유급인턴보좌관제 예산을 본회의에서 편법 통과시켰다. 더구나 유급보좌관 예산 통과 여부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사태까지 연출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해 자격없는 광주시의원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급보좌관제 편법 도입〉=광주시의회가 온갖 추태와 편법을 동원해 도입한 유급보좌관제는 우리 지방의회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더구나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화가 지난

7월 이뤄진 뒤 불과 6개월도 못돼 인턴보좌관까지 유급 채용하려는 시의회 행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의원유급화를 이룸과 동시에 곧바로 보좌관제까지 강행했다. 그것도 공론 과정 없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며 도입을 추진했다. 도입 시기와 절차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조금만 욕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 저지를 시도하는 등 결사 저지했지만 시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유급화 추진을 막지 못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동의'를 받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유급보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이를 반대했던 한 시의원은 동료 의원의 폭력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

〈수준 낮은 의정 활동〉=제5대 광주시의회는 출범 때부터 의장단 선출 문제로 내용을 겪는 등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투표 과정에서 편이 갈리는 것이야 정치적 행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장단이 선출이 끝나면 서로 승패를 인정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의원들은 이때부터 두 편으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행정감사에서는 흥분할 상황도 아닌데 고성을 지르며 집행부 간부들을 욕박지르는가 하면 총분처 못한 준비로 뒤쳐 집행부 측의 비아냥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제재해제 먼저" 美 "핵폐기 먼저"

오늘 베이징서 6자회담 재개

13개월만에 북핵 6자회담이 18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회담에 정통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수석대표회의가 1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며 이후 10시50분에 개막식, 11시에 전체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각국 수석대표는 전체회의에서 기

조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12시30분에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업무 오전 회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17일 전했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에 앞서 17일 오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 시내 모처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힐 차관보는 이날 낮 베이징에 도착했다. 힐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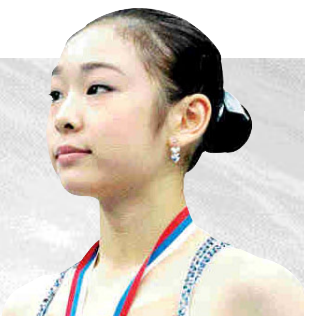
의 회동에서는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호혜조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만나 핵 폐기 이행조치와 상응 조치, 그리고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제 문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연아, 진정한 '피겨 여왕'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 22면



광주 '사랑으로, 부영' 양산 임대분양!

- 1. 양산 양산 2단지 100평 이상 전용면적 130평 이상 아파트 분양
- 2. 양산 양산 2단지 100평 이상 전용면적 130평 이상 아파트 임대 분양
- 3. 양산 양산 2단지 100평 이상 전용면적 130평 이상 아파트 임대 분양
- 4. 양산 양산 2단지 100평 이상 전용면적 130평 이상 아파트 임대 분양

2007년 1월 입주예정!

062) 368-8322

부영주택산업(주)
www.byeong.co.kr